

대 各五指는若干 破損되었다. 무릎은 얇고 좁아 異例의 인데 무릎 下底는三·五cm의 內空이다. 光背는 舟形으로 內曲되었으며 그 周緣이 火爐文을 이루고 內面間地에는 左右七處에 굵은 火焰文을 도려 내었는데 그 手法이 注目된다. 實測値는 總高一〇cm 陶幅四cm 膝幅四·九cm로 光背 廣幅七cm 下幅六cm이다. 光背의 手法이나 相好 및 各部의 樣式은 보아 年代는 羅末麗初로 推定된다.

## 東國厚生錄의 鑄字製造法

金 然 昌

東國厚生錄(寫本 著者未詳 單卷 每半葉十二行二十字 册長縱二十三寸 橫二十二寸 總一四七葉 筆者藏)은 韓國의 固有한 諸農書와 博物醫書等을 基本하여 自己經驗과 聞見을 添付하여 著述한 一種의 農書인데 著述된 年代는 內容이나 紙質上으로 보아 李朝 肅宗末이나 英祖初頃으로 짐작되며, 內容은 田家占驗 農稔歌 穀種預備 種穀 區種 種樹種花 種蔬 養蠶 養畜 雜方 救荒方 收藏果實法 造煎果法 造蔬菜法 任魚肉法 造醬法 造醋法 造酒法 食忌 煎造茶湯法 造粉麪餅法 造餡糖法 造粥飲法 造料物法 造軟泡法 車輿造筆硯法 鑄字 諸雜方 穀品等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項目中 品名下에 借字나 國文으로 鄉名을 注記하고 地名 人名 文獻을 明示하였다.

특히 本書에 收錄된 鑄字製造法은 從來에 알려진 文獻이 極히 稀少한 뿐만 아니라 陶活字製造法이 記載된 文獻으로는 本書의 記錄이 唯一한 듯하며 左에 그 原文을 紹介하여 同好者에게 一助가 되고자 하는 바이다.

### 「鑄字」

一、鐵鑄字……鐵鑄取陶土精細治之填鋪木板上而板四邊皆有匡郭填鋪既均平曝之日中待其半乾取薄紙楷書大小隨意鎔蠟塗之俟着板上令刻手爲陰刻既訖始鎔鐵取汁用杓灌之板上務令平鋪候冷凝合脫下板上則是爲鐵鑄字每字剪出用鐵刷子磨治箇箇精潔

一、土鑄字……土鑄用陶土精細潤潤者和水如榆木汁之類和合精搗既熟先此取木板列鑿孔穴如鐵丸鑄板背則土皆脫去成形如雙陸骰子置列日中既乾以洪武正韻體書於唐紙模於其上以隔刻之厚塗白蠟灸之火中介夕精好 李統制載恒在黃州兵營時得陶土如磁器土地所無者用作土鑄親書灸出云

一、土板……中原土板則日灸半乾書紙塗蠟模着陽刻如法訖便漆墨印出一板數百張多者列數十板少者列十餘板印訖削去上面刻字又刻如前法印出無限削去之土又治填板云

一、木鑄字……近法木鑄字用烏樺木墨柿木梨樹木華陽木等刻成之

以上の記錄을 一考하면 鐵鑄字란 金屬活字를 通稱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이와같은 金屬活字의 製造方法을 記錄한 文獻으로는 李朝初期 成覲의 慵齊叢話가 있는데 時代와 製造方法이 다른 本書의 記錄은 앞의 研究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 바이다.

또한 土鑄字는 陶活字이며 李載恒(字 君望 顯宗十三年壬子生 英祖元年己巳卒)이 肅宗末頃(西紀一七二〇年頃) 黃海道 黃州에 統制師로 있을 때 黃州에서 産出되는 陶土를 使用하여 親히 洪武正韻體로 親書하여 陶活字를 製造한 史實이 記錄되어 있다. 그러나 그가 그것으로 어떠한 書冊을 印行하였는지에 對해서는 말이 없으나 洪武正韻으로 親作云云 하는 것은 陶活字의 製造法이 金屬活字의 製造法보다 技術上 難點이 있기 때문이다. 即 陶活字는 그 字體가 金屬活字의 字體처럼 精密하며 屈曲性있게 製造되지 못하므로 洪武正韻體와 같이 直線의이며 若干 肥大한 字體로 製造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勿論 李載恒이 그것을 創始하여 普及化한 것은 아니겠지만 肅宗年間을 前後한 印本中에는 그 字體가 洪武正韻體와 類似하며 木活字라고 速斷키 어려운 書冊들이 多存하니 이 點에 對해서 앞으로 留意하여야 할 問題라고 생각한다.

土板에 關해서는 從來 아무런 資料가 論議된 바 없지만 本書에 云云 하듯이 中國에서는 當時 相當히 普及된 듯하며 本書가 著述된 年間 即 康熙年間에 中國에는 磁板으로 刊印된 「周易說略」 등이 現存하고 있으니 本書의 著者가 印刷方面의 厚生에 博聞多見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다. 그리고 本書에 記載된 活字名이 그 材料에 따라 鐵鑄字 木鑄字 土鑄字라고 하고 있으니 여기에 一考해야 할 것은 高麗時代의 鑄字라는 記錄도 다만 「活字」만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考古美術 十一

◎ 仁川博物館에서 支石墓發掘

仁川博物館에서는 六月八、九兩日間 永宗島 雲南里에서 北方式支石墓 一基를 發掘하였는데 梨花女大의 崔淑卿氏가 立會하였다. 遺物은 없었으나 支石部分에 故意的로 攔린 木炭層과 支石墓附近에서 櫛文土器片을 發見, 그 中 木炭은 六月十八日 同人 金元龍氏에 依하여 「미취간」大學으로 보내어 年代檢査를 依頼하였다.

◎ 丹陽郡 梅浦에서 石箱墓調査

同人 金元龍氏는 六月二十一日부터 二十三日까지 淸州와 忠州地方의 文化財調査 및 丹陽郡 梅浦面 安東里에서 나온 石箱墓를 實査하고 歸任하였는 바 그 概略은 다음과 같다.

一九六三年 六月十三日 當地的 韓一세멘트會社 外人住宅敷地 發掘中 地下一三m에서 頁岩 各各一枚石으로 차여진 石棺이 發見되었는데 長一m、幅〇·四m 高〇·五m 内部에서 人骨片 少數와 磨製石鏃 十三개(三角形 十二、有莖式一) 및 細小貝玉一개가 採集되었다. 遺物位置 其他는 石棺의 側壁을 예고 採集했기 때문에 一切不明하다. 앞으로 放射性炭素年代決定法에 依한 人骨의 年代檢査를 기다려 詳報를 金元龍氏가 發表할 豫定이다.

◎ 鬱陵島古墳調査

國立博物館에서는 六月一日부터 十二日까지 鬱陵島全域에 分布된 古墳을 調査하였다.

同島의 古墳은 北面 玄浦洞과 西面 南西洞에 三十餘基의 群集을 이루고 있다.

며 그外에도 海岸에 接近한 小平地나 丘陵地帶에 數基乃至十餘基씩 存在하는 穴이 많았다. 그 古墳의 大部分은 相當히 오랜 옛적에 盜掘되었으며 現在 開口된 것 또는 半破된 것이 大部分이다. 그 構造는 所謂橫穴式積石古墳이며 극히 小數의 竪穴式古墳도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이번 調査에서 發掘된 것은 北面 天府洞의 西쪽 丘陵上에 있는 三基의 古墳中의 二基였다. 이 古墳은 서로 東西에 一列을 지어 있으며 古墳의 軸이 역시 東西向이었다. 調査는 이 中 東쪽과 가운데의 것이며 東쪽것은 入口가 東向하며 이미 完全히 開口되어 墳内部는 黃褐色의 흙이 가득차 있었고 調査는 古墳入口部分의 構造를 밝히는데 그쳤으며 古墳内部에서 三、四種의 土器를 發見하였고 墳甕을 이룬 石壘上에서 一面이 扁平하며 그 上下 네 귀에 把手形의 環이 있는 높이 約五〇cm의 異形土器를 發見할 수 있었다. 가운데 古墳은 그 西쪽 끝 端에 작은 盜掘坑이 있었으나 意外로 内部는 破損이 적어 많은 土器破片과 石製網錘 그리고 中央에 머리를 닦대어 東西로 伸展된 二具의 人骨을 檢出할 수 있었다. 土器는 그 大部分이 復原可能하며 그 특징은 器의 腹部가 一面 또는 四面이 扁平하게 된 것이 많은 點이다. 이들 古墳의 出土土器로 推定하면 新羅統一末期의 것으로 보이며 地域的인 偏差를 參酌하면 高麗時代의 극히 初期의 것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이 생각되며 現在 國博에서 遺物의 整理와 復原 및 檢討를 계속하고 있다고 傳한다. (調査는 金正基氏에 依하여 實施되었다)

◎ 光州 無等山 陶窯址 發掘調査

國博에서는 崔熙淳氏 主宰下에 金正基, 鄭良謨·金東賢 諸氏와 梨大博物館의 姜敬淑氏가 參加하여 全南道文化財保存委員會의 協助下에 光州市 忠孝里인 無等山 北麓의 陶窯址를 六月十九일부터 發掘調査中. 忠孝里附近에는 現在 五個處의 陶窯址가 發見되어 있으며 이번 調査로서 다시 한 곳의 窯址가 發見되었다. 이번 調査는 忠孝里 金谷洞部落 南쪽 丘陵에 있는 두 개의 「가마」터와 磁器堆積層의 調査를 目的하였으며 오는 七月十七日頃까지 調査가 繼續될 豫定이다. 現在까지 出土된 遺物은 李朝初期의 各種 粉靑磁가 大部分이며 祭器 其他의 異形磁器가 많이 發見되었다. 出土遺物의 銘文으로 官窯로 認定되며 世宗實錄地理志에 나타나는 磁器所가 있었던 梨帖里(맏고개)의 「가마」와 一連의 關連을 가진 官窯로 생각된다.